

#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

차주희<sup>1</sup>, 박원주<sup>2\*</sup>

<sup>1</sup>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sup>2</sup>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The Effect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Depression: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al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Joo-hee Cha<sup>1</sup>, Won-Ju Park<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Human Service, Hanyang Cyber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이해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322명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HMPS), 자기은폐 척도,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우울 척도(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25.0과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순차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은폐를 낮춤으로써 정서표현양가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al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22 adults aged 20 years and older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Hewitt and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the Self-Concealment Scale (SCS),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concealmen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Second, it was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was serially mediated by self-conceal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Depression, Self-Concealmen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rial Mediation Effect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yang Cyber Univ.)

email: parkwj@hycu.ac.kr

Received September 12, 2023

Revised October 6,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 1. 서론

우울(Depression)은 '심리적 독감'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매우 흔한 정신 장애이지만, 개인의 의욕과 능력을 저하시켜 현실에 대한 적응을 힘들게 만들고,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장애이기도 하다[1]. 우울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회복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울로 고통받고 있어도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만 18세~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2]'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7.7%이며 1년 유병률은 1.7%로 발표되어 우울로 고통받는 성인의 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울 장애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울을 경험하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 환자는 특정 연령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7~2021년)간의 우울증 진료 추이 발표[3]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환자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69만 1,164명에서 35.1%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만 7,166명으로 22.8% 증가하며 가장 많았지만, 30대~60대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모두 각각 약 13만~15만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전 연령에 걸친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 자유 경쟁을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들은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4].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타가 2019년에 실시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관련 조사 결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나친 경쟁(57%)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적 환경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즉 현대인은 과도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성과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감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완벽주의는 성취하기 어려운 기준이나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생산성과 결과로만 평가하려는 성격 특질을 말한다[6]. 완벽주의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Hewitt과 Flett은 완벽주의자의 행동적 특성보다는 대인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완벽주의를 세가지 차원(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으로 구분하였다[7].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완벽주의 차원 중에서도 심리 부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고 병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우울과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입증되었다[9-13]. 따라서 우울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완벽주의 중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완벽주의 성향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성격 특질[7]로서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상담 개입의 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변화시킬수 있는 매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14,15].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6].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거부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정서표현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16],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이다[17].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정서표현을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며[18],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정서를 표현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타인의 반응과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9]. 정서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전달하는 의사 소통의 방식이며,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서표현은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20,21]. 단순히 정서표현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정서표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2].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서표현양가성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주의와 정서인식명료성 등 정서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를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에서 확장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매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정서표현 욕구와 억제 욕구 간의 이중 동기 갈등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유사하게 개방 욕구와 은폐 욕구 간의 이중 동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은폐에 초점을 두었다. 자기은폐는 개인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24]. 최근 연구에서는 자기은폐를 동기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 애착 등이 자기은폐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는 차례로 비밀 유지 및 행동 회피 등과 같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정서표현 억제 등과 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 전략을 초래하여 결국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자기은폐 작동모델을 제안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개방 욕구와 은폐 욕구간의 이중 동기 갈등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가정하였다[25]. 자기은폐는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향[24]이기 때문에, 비밀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병리적이지 않으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경험할 수 있고[26], 역기능적인 정서 조절 및 행동 회피 프로세스가 수반할 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7]. 또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고[28],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 오히려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우울

감이 초래될 수 있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 작동 모델에서 제안한대로 자기은폐가 역기능적 정서 조절전략인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부와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4,30]. 하지만 두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우울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 전 연령층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완벽주의와 우울에 관한 이전 연구들(1990년~2014년)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9]. 따라서 성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매개효과를 넘어 매개 변인 간의 순차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으며 성인 내담자의 구체적인 상담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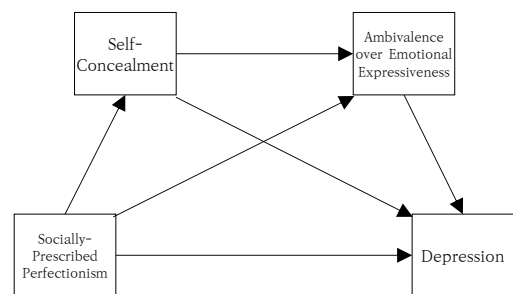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연구문제 1.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총 32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만 23세부터 만 72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42세였으며, 남성은 116명(36.0%), 여성은 206명(64.0%)이었다. 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22)

	Spec.	N	%
Gender	Male	116	36.0
	Female	206	64.0
Age	20s	20	6.2
	30s	101	31.4
	40s	151	46.9
	50s	44	13.7
	60s	3	0.9
	70s	3	0.9
Job	Students	3	0.9
	Office Job	172	53.4
	Self-employment	11	3.4
	Public Official	70	21.7
	Profession	31	9.6
	Housewife	21	6.5
	etc	14	4.3
Region	Seoul	156	48.4
	Incheon/Gyeonggi-do	111	34.5
	Gwangju/Jeolla-do	39	12.1
	etc	16	5.0

### 2.2 측정도구

#### 2.2.1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와 Flett[7]이 개발하였고, 이를 한기연[10]

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의 세 가지 하위요인(자기 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척도 중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Hewitt와 Flett의 연구[7]에서는 .87이었고, 한기연[10]의 연구에서는 .76,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 2.2.2 자기은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arson과 Chastain[24]의 자기은폐 개념에 기초하여, 박미란과 이지연[3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세 가지 하위 요인은 은폐경향성, 비밀의 소유,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은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박미란과 이지연의 연구[31]에서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2.2.3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8]가 개발하고, 이를 최해연과 민경환[32]이 한국적 문화에 맞추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두 가지 하위 요인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최해연과 민경환[32]의 연구에서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2.2.4 우울 척도(한국판 CES-D)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dloff[33]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와 이민규[34]가 변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빈도를 ‘거의 드물게(0점)’부터 ‘거의 대부분(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 검구와 이민규[3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설문 참여자 3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별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고,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고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은 9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322명이 보고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1	2	2-1	2-2	2-3	3	3-1	3-2	4
1	1								
2	.52**	1							
2-1	.36**	.78**	1						
2-2	.42**	.87**	.48**	1					
2-3	.53**	.89**	.53**	.71**	1				

3	.48**	.70**	.53**	.57**	.67**	1			
3-1	.49**	.73**	.55**	.59**	.71**	.95**	1		
3-2	.37**	.52**	.38**	.44**	.48**	.88**	.69**	1	
4	.44**	.50**	.33**	.46**	.46**	.48**	.50**	.34**	1
M	3.36	2.75	2.92	2.78	2.56	2.92	2.59	3.35	.58
SD	.86	.85	.94	1.02	1.04	.71	.82	.71	.49

\*\* $p < .01$

1.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2. Self-concealment
  - 2-1. Tendency to conceal
  - 2-2. Possession of secrets
  - 2-3. Fear of leaking secrets
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3-1. Self-defensive ambivalence
  - 3-2. Relationship-focused ambivalence
4. Depression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은폐( $r=.52, p < .01$ ), 정서표현양가성( $r=.48, p < .01$ ), 우울( $r=.44,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은폐는 정서표현양가성( $r=.70, p < .01$ ), 우울( $r=.50,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양가성 또한 우울( $r=.48,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상관관계가 .70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차 한계가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로 확인되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은폐의 하위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r=.67, p < .01$ )의 정적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밀의 소유( $r=.57, p < .01$ ), 은폐경향성( $r=.53, p < .01$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과 자기은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정적 상관( $r=.73, p < .01$ )이 관계관여적 양가성( $r=.52, p < .01$ )보다 높았다. 특히,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상관( $r=.71, p < .01$ )이 자기은폐 변인 전체와 정서표현양가성 전체에 대한 상관( $r=.70, p < .01$ )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여 비밀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방어양가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해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고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은 9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은폐( $\beta=.52, p<.001$ ), 정서표현양가성( $\beta=.16, p<.001$ )과 우울( $\beta=.21, p<.001$ )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은폐도 정서표현양가성( $\beta=.61, p<.001$ )과 우울( $\beta=.25, p<.001$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서표현양가성도 우울( $\beta=.20, p<.001$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제시하였다.

Table 3.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al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V.	D.V.	B	SE	$\beta$	t	R <sup>2</sup>	F
1	2	.51	.05	.52	10.81***	.27	116.81***
1	3	.14	.04	.16	3.56***	.51	164.96***
2		.52	.04	.61	13.40***		
1	4	.12	.03	.21	3.82***	.31	47.83***
2		.14	.04	.25	3.62***		
3		.14	.05	.20	3.05***		

\*\*\*  $p<.001$

1.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2. Self-concealment
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4.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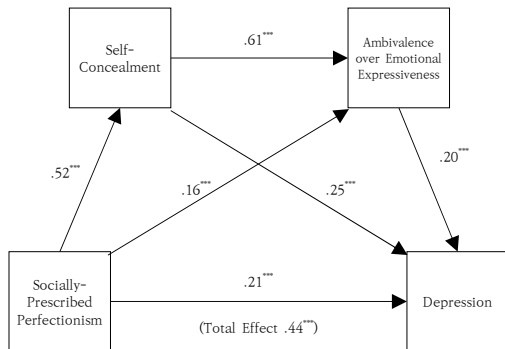


Fig. 2.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동시에 투입한 순차 매개 모형에서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은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eta=.52, p<.001$ ), 자기은폐는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eta=.25, p<.001$ )을 미쳤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므로 자기은폐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

서표현양가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eta=.16, p<.001$ )을,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eta=.20, p<.001$ )을 미쳤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므로 정서표현양가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52, p<.001$ ), 자기은폐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61, p<.001$ ),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20, p<.001$ )을 미쳤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 실행 결과,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 및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서 우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Significance test and decomposition of the effect

Path	B	SE	$\beta$	Boot	
				LLCI	ULCI
Total Effect	.25	.03	.44	.19	.30
Total Direct Effect	.12	.03	.21	.06	.18
Total Indirect Effect	.13	.03	.22	.08	.18
Specific Indirect Effect	1→2→4	.07	.02	.13	.04 .11
	1→3→4	.02	.01	.03	.00 .04
	1→2→3→4	.04	.02	.06	.01 .07

1.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2. Self-concealment
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4. Depression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22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 우울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 등 부적응적 심리 지표들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국내외 선행 연구[7,10-13,17,3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은폐 및 정서표현양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36]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표현양가성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은폐는 우울 및 정서표현양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은폐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14,29]와, 자기은폐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37]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선행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변인들이 우울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매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은폐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상관관계는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과 자기은폐와의 상관관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주로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은폐 수준이 높고, 거부되거나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자기방어적 동기가 주로 작용하여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으며, 우울의 수준 또한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순차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순차적으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설정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와 거부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숨기는 자기은폐 성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서표현 욕구와 억압 욕구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알아차리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정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회피하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우울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17]. 특히 우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적응적인 정서를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화한 장애[38]이므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제에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더라도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낮추면 우울의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개입이 어려운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의 부정적 정보를 은폐해야 한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바꾸도록 돕는 인지 중심 치료를 통해 자기은폐 수준을 낮추고, 억압되거나 차단되어 있던 감정을 자각시키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는 정서 중심 치료를 통해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낮추는 상담 개입 전략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성인의 우울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성인의 경우,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거부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되어 우울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는 성인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정보를 은폐해야 한다는 역기능적 신념에 따른 자기은폐 성향을 낮춤으로써, 자기방어적 동기에 의해 느끼는 정서표현 갈등이 감소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성인으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의 상담 전략 수립에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뿐 아니라 성인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대학생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진행됨에 따라 연구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를 성인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 결과가,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 참여자의 지역, 성별, 직업적 특성이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로만 구성된 설문의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개인은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외에도 관찰법, 질적 연구 등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회성 응답을 활용한 횡단 연구이므로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두 개 이상의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평정하는 종단 연구가 진행된다면 인과 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 외에도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변인들이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양가성 외 다른 변인들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 모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볼 때,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은폐 성향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자기은폐 성향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우울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 M. Kwon, Modern abnormal psychology, p.685, Hakjisa, 2021, pp.300-304.
- [2] Y. M. Lee,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Statistical repor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Korea, pp.29-58.
- [3] J. B. Lee, Y. J. Kim, Analysis of treatment statu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last 5 years (2017-2021), Statistical repor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pp.1-5.
- [4] T. C. Jeong, Seeking to move beyond the limits of a competitive society to a cooperative society, Pressian, 2023, Available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0215003302709> (accessed Sep. 7, 2023)
- [5] H. J. Kim, Korean society where no one is happy... Mental health of modern people who are sick, Segye Daily, 2019, Available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831503767> (accessed Sep. 7, 2023)
- [6] D. D. Burns,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Vol.14, No.6, pp.34-52, 1980.
- [7] P. L. Hewitt, G. L. Flett,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No.3, pp.456-470,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0.3.456>
- [8] Y. H. Kim, S. K. Seo, "A Review of Perfectionism: Assessment and Trea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20, No.3, pp.581-613, 2008.
- [9] D. G. Lee, K. A. Ham, B. H. Bae, Y. A. Cheon,



-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Trend and Meta Analysis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1990 to 2014",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4, No.1, pp.305-333, 2015.
- [10] K. Y. Ha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 Concept, measurement and relation to maladjustment*,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23-104, 1993.
- [11] M. W. Enns, B. J. Cox,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37, No.8, pp.783-794, 1999. DOI: [https://doi.org/10.1016/S0005-7967\(98\)00188-0](https://doi.org/10.1016/S0005-7967(98)00188-0)
- [12] M. M. Smith, S. B. Sherry, M. E. McLarnon, G. L. Flett, P. L. Hewitt, D. H. Saklofske, M. E. Etherson, "Why doe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lace people at risk for depression? A five-month two-wave longitudinal study of the Perfectionism Social Disconnec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34, pp.49-54, 2018.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5.040>
- [13] P. L. Hewitt, G. L. Flett, E. Ediger,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Longitudinal assessment of a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5, No.2, pp.276-280,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5.2.276>
- [14] J. E. Shin, D. G. Le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alment", *Studies on Korean Youth*, Vol.22, No.2, 2011.
- [15] E. L. Pederson, D. L. Vogel,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4, No.4, pp.373-384,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4.4.373>
- [16] M. A. Aldea, K. G. Rice,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3, No.4, pp.498-510, 2006.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3.4.498>
- [17] Y. R. Oh, W. Y. Song, "The Effect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to Depress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0, pp.150-160,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0.150>
- [18] L. A. King,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5, pp.864-877,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19] E. J. Kim, J. S. Kim,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3, pp.605-630, 2010.
- [20] L. S. Greenberg, J. D. Safran,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Vol.44, No.1, pp.19-29, 1989.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4.1.19>
- [21] P. Salovey, D. Grewal,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4, No.6, pp.281-285, 2005. DOI: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5.00381.x>
- [22] J. W. Pennebaker,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Vol.26, No.2, pp.82-95, 1985. DOI: <https://doi.org/10.1037/h0080025>
- [23] H. Y. Choi, K. H. Min, D. G. Lee, "The Role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the Link of Belief in Emotional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3, pp.1063-1080,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3.200809.1063>
- [24] D. G. Larson, R. L. Chastain,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9, No.4, pp.439-455, 1990. DOI: <https://doi.org/10.1521/jscp.1990.9.4.439>
- [25] D. G. Larson, R. L. Chastain, W. T. Hoyt, R. Ayzenberg, "Self-concealment: Integrative review and working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34, No.8, pp.705-774, 2015. DOI: <https://doi.org/10.1521/jscp.2015.34.8.705>
- [26] D. Wegner, R. Erber,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6, pp.903-912, 1992.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3.6.903>
- [27] A. Masuda, M. S. Boone, C. A. Timko, "The role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alment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Eating Behaviors*, Vol.12, No.2, pp.131-135, 2011. DOI: <https://doi.org/10.1016/j.eatbeh.2011.01.007>
- [28] K. Kawamura, R. O. Frost,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28, No.2, pp.183-191, 2004. DOI: <https://doi.org/10.1023/B:COTR.0000021539.48926.c1>
- [29] J. K. Heo, *The influence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elf-disclosure and self-concealment on depressive mood :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6-19, 2014.
- [30] M. W. Chi, J. Y.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7, No.4, pp.127-140, 2020.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0.7.4.127>

- [31] M. R. Park, J. Y. Lee, "Construct Exploration and Validation of Self-Concealment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4, pp.1547-1565,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4.200812.1547>
- [32] H. Y. Choi, K. H. Min,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1, No.4, pp.71-89, 2007.  
DOI: <https://doi.org/10.21193/kjpp.2007.21.4.004>
- [33]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34] K. K. Chon, M. K. Lee,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1, No.1, pp. 65-76, 1992.
- [35] T. Y. Lee, M. K. Song, "Relation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2, No.2, pp.397-416, 2017.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7.22.2.010>
- [36] J. Y. Bae, J. H. Heo, "Relation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elf-concealment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6, pp.757-772, 2020.
- [37] E. S. Lee, "Th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in Men's University Students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nd self-concealment",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8, No.3, pp.91-109, 2019.  
DOI: <https://doi.org/10.22839/adp.2019.8.3.91>
- [38] J. S. Park, I. S. Kim, M. H. Hyun, J. H. Yu,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Deficit, Emotional Express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omatization, Depression and Stress Experience Frequen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3, No.3, pp.571-581, 2008.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8.13.3.002>

차 주 희(Joo-Hee Cha)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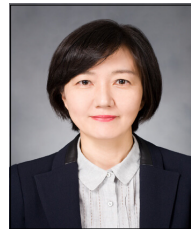
- 2023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학과 (심리학석사)

<관심분야>

정신역동치료, 정서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조지아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역동치료, 상담사례연구